

제공일자	2014. 3. 6 (목)	담당자	박선영 연구위원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38 010-5296-6832
		총 3매	

제목 : 보험연구원 『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』 보고서 발간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 박선영 연구위원은 『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』 보고서에서 주택지분을 활용해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인 간병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편안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.
-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 제도를 도입하면 연금과 간병보험 간 상호 반대되는 위험군의 리스크 풀링 효과로 인해 역선택이 완화되고 소비자의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·내외적으로 주택연금과 간병보험을 연계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음.

- 보험연구원은 동 보고서에서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주요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시
- 첫째, 현행과 같이 공적 주택연금을 유지하면서 주택지분에 대한 세제혜택 조치를 확대해 주택지분을 연금에 대한 대체재로 활용 가능하도록 유도
 - 미국에서는 이미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화한 유동자산을 간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연금에 대한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음.
 - 둘째, 공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품에 대한 운영은 민간이 주도하

되 정부가 저소득 계층에 대해 주택담보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

— 미국의 메디케어·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(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, CMS)는 간병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가서비스에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간병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사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출이자를 깎아줌.

○ 셋째, 영국의 평생주택담보대출(Lifetime mortgage)과 유사한 주택담보형 간병보험 상품을 도입

— 연금과 생명보험에 간병특약을 부여하는 제1·2세대 하이브리드 간병보험 상품에서 발전하여 제3세대 하이브리드 간병보험 상품인 주택담보형 간병보험 상품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.

세제혜택 부여 및 방카슈랑스 채널 이용으로 활성화 기대

□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 제도를 도입 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시행될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간병보험지출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○ 최근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2013년 연금 세법개정안에서 연금계좌에서 사용한 노후의료비 지출을 연금수령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는데 이를 간병비 지출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— 또한 미국처럼 간병비 지원혜택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간병 상품에 가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함.

□ 주택담보형 간병보험의 개발은 은행과 보험업권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감독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주택담보형 간병보험을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으로 특화하면 주택담보대출에 강점이 있는 은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
- 단, 『보험업법』의 「대출취급자 보험상품 판매 금지조항」의 감독규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미국과 유사한 신용생명보험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법규정 부분의 보완도 필요함.

역선택 완화와 간병비 재원 부담 여력 확대로 시장확대 가능

- 주택담보형 간병보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못했으나 노후에 삶의 질 개선과 복지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양욕구 수요자를 간병보험 시장으로 흡수하고 침체기에 놓인 간병보험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.
- 현재 소득과 저축만으로 간병보험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재정 부담이 큰 노령층의 경우에도 주택지분을 현금화할 경우 간병보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가구 수의 증가가 예상됨.
- 또한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의 경우 건강리스크가 우려되는 계층의 경우 연금가입을 꺼리기 때문에 단독 간병보험 상품보다 심사기준이 완화될 유인이 많아 미가입자들의 참여가 예상됨.

붙임 : 조사보고서 『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』. 끝.